

News release

스위스재보험, 2014년에 35억 달러의 탄탄한 순이익 달성;
주당 4.25 스위스프랑의 정기배당 및 3.00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
그리고 최대 1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자사주매입 제안

- 탄탄한 언더라이팅 실적과 투자결과에 힘입어, 35억 달러의 그룹 순이익 기록
- 손해 재보험(P&C) 사업부는 탄탄한 언더라이팅, 양호한 자연재해 손실 및 손 준비금 환입에 힘입어 36억 달러의 순이익 기록. 합산비율 83.7%
- 생명 재보험(L&H) 사업부는 4억6천2백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전에 발표되었던 2004년 이전의 미국 생명보험 사업과 관련한 경영진의 조치들과,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가 반영된 것임. 이들은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임
- CS(Corporate Solutions) 사업부, 3억1천9백만 달러의 순이익 기록. 모든 지역에서 수익성 있는 성장
- Admin Re® 사업부, 3천4백만 달러의 순이익 기록. 9억4천5백만 달러의 탁월한 총 현금창출
- 효율 관련 압박에도 불구하고, 1월의 손해 재보험 갱신에서 양질의 포트폴리오 유지
- 이사회는 주당 4.25 스위스프랑의 정기배당 및 3.00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¹, 그리고 최대 1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입 프로그램을² 제안할 예정
- 스위스재보험, 2011-2015년의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 2016년부터 실행될 새로운 경영목표 발표

취리히, 2015년 2월 19일 – 스위스재보험은 탄탄한 언더라이팅 실적과 투자결과에 힘입어 2014년에 3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생명 재보험(L&H) 사업부는 4억6천2백만 달러의 연간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전에 발표되었던 경영진의 몇 가지 조치들과, 롱제비티(longevity) 거래를 뒷받침해준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S 사업부는 수익성 있는 연간 성장을 기록했다. Admin Re® 사업부는 9억4천5백만 달러의 탁월한 총 현금창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81.4% 증가한 것이다. 사업실적과 탄탄한 자본 포지션을 고려하여,

¹ 제안된 배당금은, 자본출자에 의한 법정준비금으로부터, 스위스 원천세 면제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²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별도의 트레이딩 부서에서 수행 예정.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New York
Telephone +1 914 828 6511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3660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SwissRe

스위스재보험 이사회는 주당 4.25 스위스프랑의 정기배당 및 3.00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스위스재보험 이사회는 최대 1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스위스재보험 그룹 CEO Michel M. Liès는 “언더라이팅에 대한 철저한 접근방식과 적극적인 차별화 노력을 통해 스위스재보험은 어려운 업계환경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핵심적인 보험/재보험 역량 범위를 초월하는 지식, 전문성 및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사의 실적과 자본 포지션은, 당사 주주들에 대해 제안된 약 37억 달러라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배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적이 부진한 분야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당사의 2011-2015 경영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탄탄한 연간 전체그룹 실적. 탄탄한 투자이익

그룹 전체의 2014년 순이익은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 44억 달러). 이러한 순이익 감소는, 예전에 발표되었듯이 2004년 이전의 미국 생명보험 사업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경영진 조치에 따른 영향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생명 재보험 사업부의 실적은, 롱제비티 거래를 뒷받침해준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에 따른 영향도 받았다.

그룹 전체의 경과보험료와 수수료 수입은 8.4% 증가한 3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 288억 달러). 스위스재보험은 어려운 저 수익률 환경에서 탄탄한 연간 투자실적을 달성했다. 투자 결과는 총 44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43억 달러). 투자수익률은 다소 증가한 3.7%를 기록했다 (전년 3.6%). 상장주식 및 대안투자의 매각도 이러한 결과에 일부 기여했다.

주당 순이익은 10.23 달러(9.33 스위스프랑)를 기록했다 (2013년 12.97 달러, 12.04 스위스프랑). 2014년 말 기준 주주자본은 348억 달러였다 (2013년 말 기준 319억 달러). 주당 순자산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101.78 달러(101.12 스위스프랑)였다 (2013년 말 기준 93.08 달러, 82.76 스위스프랑).

주주들에 대한 상당규모의 자본환원 계획

그룹 전체의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스위스재보험 이사회는 2013년의 주당 정기배당 3.85 스위스프랑에 비해 10% 증가한 주당 4.25 스위스프랑의 2014년 정기배당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는 주당 3.00 스위스프랑의 특별배당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급은 자본출자에 의한 법정준비금으로부터, 스위스 원천세 면제 배당금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5년 4월 21일로 예정된 연례주주총회에서 주주 승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상기의 세금우대 준비금은 모두 소진될 것이다. 상기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되면, 스위스재보험은 향후의 잉여자본 관리조치들이 자사주매입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2016년 연례주주총회 시점까지 행사 가능한 최대 1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자본 관련 조치들이 완료되면, 2012년의 새로운 그룹 구조 도입 이후로 주주들에게 환원된 자본의 총액이 10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 재보험(P&C) 사업부, 36억 달러의 탄탄한 순이익 기록

손해 재보험 사업부의 2014년 순이익은, 양호한 자연재해 상황 및 전년도 순 준비금 환입에 따른 탄탄한 언더라이팅 결과에 힘입어, 2013년 대비 10.4%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 32억 달러). 합산비율은 83.7%를 기록했다 (전년 83.8%). 예상 자연재해 손실 및 전년도 순 준비금 환입에 대한 조정을 반영한 합산비율은 94.1%였다 (전년 94.1%).

순 경과보험료는 7.3% 증가한 1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145억 달러). 이러한 증가는 주로 비례재보험 계약의 만기와 아시아 및 미주의 대형 맞춤형 거래에 힘입은 것이다.

생명 재보험(L&H) 사업부, 미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인해 4억6천2백만 달러 순손실 기록

생명 재보험 사업부는 2014년에 4억6천2백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2013년 순이익 4억2천만 달러), 이는 스위스재보험의 2004년 이전의 미국 생명보험 사업에 대해 실행된 경영진 조치의 완료에 따른 6억2천3백만 달러의 세전 부과금을 반영한 것이다. 예전에 발표된 이와 같은 조치들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객들과의 협상 등이 있다. 또한,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는 생명 재보험 사업부의 2014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재보험은 상기 자금조달 구조가 관련 채권에서 지급되는 이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해당 구조를 해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해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었으며, 스위스재보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가 제거되었다. 해당 거래에서의 통제비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실적개선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재보험은 2015년까지 생명 재보험 세그먼트의 자기자본이익률 목표 10%-12%를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2.6%였다 (전년 5.8%). 미국 생명보험 사업에 대한 경영진 조치의 영향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7.4%로 개선되었을 것이다.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12.4% 증가한 1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전년 100억 달러), 이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보험료 증가 및 신규계약, 영국의 대규모 통제비티 거래, 그리고 미국의 매년 갱신 가능한 장기계약의 정기 인상에 주로 힘입은 것이다.

CS 사업부 순이익 14.3% 증가. 보험료 17.9% 증가

CS 사업부는 2014년에 3억1천9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의 순이익 2억7천9백만 달러에 비해 14.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상해보험 및 신용 부문의 지속적인 유기적 사업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자연재해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수많은 인재에 따른 손실로 인해 상쇄되었다. CS 사업부의 합산비율은 2013년의 95.1%에서 93%로 개선되었다.

순 경과보험료는 17.9%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29억 달러). 이는 모든 지역에 걸친 유기적 성장에 힘입은 것인데,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4년 7월에 열린 스위스재보험 투자자의 날(Investors' Day) 행사에서, CS 사업부는 2015년 이후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선도적 시장지위(Primary Lead)를 향한 확장에 집중하고 일부 고성장 시장에 더욱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밝혔다. 2014년에 CS 사업부는 콜롬비아에서의 인수 거래를 완료하였고 중국에서의 인수 거래를 발표했는데, 이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2015년 1 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Admin Re® 사업부, 3천4백만 달러의 순이익 기록. 9억4천5백만 달러의 현금 창출

Admin Re® 사업부는 2014년에 3천4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3년 4억2천3백만 달러). 이러한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회수를 지속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에 발표했던 미국 자회사 Aurora National Life Assurance Company (Aurora) 매각에 따른 2억3백만 달러의 손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Aurora 손실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2억3천7백만 달러였다. 현금 창출 규모는 9억4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5억2천1백만 달러). 이러한 탄탄한 실적은 잉여준비금 환입, 영국에서의 탄탄한 현금창출, 그리고 Aurora 매각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2014년 6월, Admin Re® 사업부는 HSBC Life (UK) Limited로부터 개인 및 단체 연금 및 관련 연금증권을 인수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사업 규모를 유지 및 확대하고 향후 주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부의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그룹 전체의 연간 실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위스재보험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David Cole은 "2014년의 실적은 당사가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사는 예전에 언급했던 경영 조치와 오래된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를 단호하게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당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스위스재보험은 고객들에게 지식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려운 시장환경에서 포트폴리오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매력적인 사업분야에 자본을 할당할 수 있는 역량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4분기 실적

그룹 전체의 4분기 순이익은 2억4천5백만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도 4분기의 12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이는 경영진의 조치들과, 생명 재보험 사업부의 롱제비티 거래를 뒷받침해준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가 반영된 것이다. 그룹 전체의 4분기 투자수익률은 3.6%였다 (2013년 3.8%). 전년 대비 약간의 감소는, 2013년 4분기의 긍정적인 외환 관련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손해 재보험(P&C) 사업부는 2014년 4분기 순이익이 12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2013년 4분기 10억 달러), 이는 상장주식 및 대안투자의 실현이익을 (상대적으로 낮은 언더라이팅 실적 및 순 세제혜택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됨) 반영하고 있다. 경과보험료는, 모든 지역에서의 다소 낮은 손해보험 요율을 상해부문의 성장이 상쇄함에 따라, 0.8%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명 재보험(L&H) 사업부는 4분기에 7억3천4백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 4분기에는 순손실 없음). 이는 주로 2004년 이전의 미국 생명보험 사업과 관련한 경영진의 조치들과, 자산 자금조달 구조의 해체로 인한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15.9%로 하락했다 (전년 -0.5%). 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2.4%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했다.

CS 사업부는 4분기에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3년 4분기 5천2백만 달러). 상해보험 및 신용 부문의 (특히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 성공적인 유기적 성장과 함께, 경과 보험료는 4.6% 증가한 8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8억3천2백만 달러).

Admin Re® 사업부는 4분기에 1억8천5백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순이익 8천5백만 달러). 이러한 결과는 미국 자회사 Aurora의 매각에 따른 2억3백만 달러의 세후 손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현금 창출 규모는 3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2억6천6백만 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스위스재보험, 2015년 1월의 갱신 과정에서의 효율 관련 압박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유지

스위스재보험은 갱신시기가 도래한 총 96억 달러 규모의 보험료 중에서 92억 달러를 갱신하였는데, 이는 4%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포트폴리오 질의 적극적인 관리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의 철수(필요한 경우)를 반영하고 있다. 위험조정 효율 적정성이 3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한 105%를 기록함에 따라, 갱신 장부는 스위스재보험의 최소수익률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자산 재해율은 모든 시장에서 감소하였지만, 이 비율은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해 세그먼트 별로 각기 다른 가격변동이 나타났다. 새롭고 매력적인 상해 사업의 기회가 일부 시장에서 나타났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비례 재보험은 비례 재보험에 비해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스위스재보험은 맞춤형 딜 및 대규모 거래를 통해 사업 차별화를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확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011-2015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 수익성 및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의 새로운 그룹 경영목표

스위스재보험은 2011-2015 년 기간의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에 있다. 2014 년의 자기자본이익률은 10.5%였으며, 이는 당해 목표 8.6%를 초과한 것이다. 2014 년의 주당순이익은 10.23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또한 당해 목표 8.80 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주당 순가치 자료는, 2015 년 3 월 18 일로 예정된 2014 년 연차보고서 발간 및 EVM 공시와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스위스재보험은 2016 년부터 두 가지의 새로운 그룹 경영목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이클에서, 당사는 무위험 수익률(예: 10 년 만기 미 국채)에 비해 700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자기자본이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매년 10%의 주당 순가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 CEO Michel M. Liès는 “앞으로 수 년간 전반적인 보험/재보험 시장환경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소규모의 덜 차별화된 기업들의 경우에 특히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수익성 및 경제적 성장에 확실히 집중함으로써 저희가 고객들 및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발표한 두 가지의 새로운 그룹 경영목표에 의해, 저희는 상기 목표가 여전히 저희의 최고 우선순위인 동시에 장기적인 약속임을 명확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간 실적 세부내역 (2013 년과 2014 년 비교)

		2014 년	2013 년
손해 재보험(P&C)	경과 보험료 (백만 달러)	15 598	14 542
	순이익 (백만 달러)	3 564	3 228
	합산 비율 (%)	83.7	83.8
	투자수익률 (%)	3.7	2.8
	자기자본이익률 (%)	26.7	26.0
생명 재보험(L&H)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	11 265	10 023
	순이익 (백만 달러)	(-462)	420
	영업이익률 ³ (%)	2.6	5.8
	투자수익률 (%)	3.2	4.1
	자기자본이익률 (%)	(-7.9)	6.4
Corporate Solutions	경과 보험료 (백만 달러)	3 444	2 922
	순이익 (백만 달러)	319	279
	합산 비율 (%)	93.0	95.1
	투자수익률 (%)	2.6	2.4
	자기자본이익률 (%)	12.5	9.6
Admin Re®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	955	1 330
	순이익(백만 달러)	34	423
	투자수익률 (%)	4.6	5.1
	자기자본이익률 (%)	0.6	6.8
그룹 통합 (전체)⁴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	31 262	28 818
	순이익 (백만 달러)	3 500	4 444
	주당 순이익 (USD)	10.23	12.97
	합산 비율 (%)	85.4	85.7
	투자수익률 (%)	3.7	3.6
	자기자본이익률 (%)	10.5	13.7

³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 영업수익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⁴ 이는 자기자본투자 등의 그룹 차원 항목도 반영한 것이다.

4 분기 실적 세부내역 (2013년 4 분기와 2014년 4 분기 비교)

		Q4 2014	Q4 2013
손해 재보험(P&C)	경과 보험료 (백만 달러)	3 920	3 887
	순이익 (백만 달러)	1 179	989
	합산 비율 (%)	86.7	84.4
	투자수익률 (%, 연환산)	4.2	2.5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35.8	32.3
생명 재보험(L&H)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	2 825	2 759
	순이익 (백만 달러)	(-734)	0
	영업이익률 (%)	(-15.9)	(-0.5)
	투자수익률 (%, 연환산)	3.0	4.4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45.5)	0.0
Corporate Solutions	경과 보험료 (백만 달러)	870	832
	순이익 (백만 달러)	70	52
	합산 비율 (%)	93.4	98.6
	투자수익률 (%, 연환산)	2.0	2.2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1.2	7.6
Admin Re®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	224	287
	순이익 (백만 달러)	(-185)	85
	투자수익률 (%, 연환산)	3.7	5.2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1.9)	5.7
그룹 통합 (전체)	경과 보험료 및 수수료 (%)	7 839	7 766
	순이익 (백만 달러)	245	1 206
	주당 순이익 (USD)	0.72	3.52
	합산 비율 (%)	87.9	86.9
	투자수익률 (%, 연환산)	3.6	3.8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2.9	15.4

상기 내용과 스위스재보험 그룹의 2014 Financial Review 는 스위스재보험 사업 및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와 2014 년도 예비 미감사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재보험의 사업 및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는, 2014 년도 감사 재무제표, 그리고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기타 공시사항 및 기 공시사항과 함께 2014 년도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스위스재보험 그룹의 2014 Financial Review 는 2015 년 3 월 18 일에 스위스재보험 웹사이트에 게재될 2014 년도 전체 연차보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및 슬라이드

스위스재보험의 실적에 대한 미디어 및 애널리스트 용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및 기록과 첨부 슬라이드는 다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swissre.com/ [[정보 슬라이드에 대한 모든 링크](#)].